‘지속적 관심’이 성보 환지본처 이끈다

다시 돌아와야 할 성보들
⑦ 에필로그

충남 사찰 · 지자체 등 힘 합쳐서 국내외 성보 환수운동 전개 ‘눈길’
시민 중심 이천석탑 환수도 ‘귀감’

공진회 · 이왕가博 식민 정책으로 성보들 이전… 다시 조명 필요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본래 자리를 떠난 성보문화재들. 사진 왼쪽부터 서산 보원사지 철불, 공주 출토 금동반가사유상(오구라 콜렉션), 하남 하사창동 철조석가여래좌상.

흥천사명 동종, 공주 출토 반가사유상, 서산 보원사지 철불, 천흥사명 동종, 이천오층석탑, 하남 하사창동 철조여래좌상. 지난 한 달여간 연재를 통해 조명한 제자리를 떠난 성보들이다. 국내는 4점이었고, 국외는 2점이었다. 이들은 모두 크고 작게 환수운동의 움직임들이 있었다.

충남의 힘…환수로 지역 정체성 확립

가장 눈길을 끌었던 환수운동 주체는 충남도였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016년 ‘충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 ‘충남국외소재문화재실태조사단’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실태조사단은 현재 3기까지 운영을 이어가며 조사 연구와 보고서 발간 · 전시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충남도의 움직임에 충남 소재 지자체의 환수 움직임도 이어졌다. 공주시의 경우 지난해 2월 시의회를 중심으로 의정토론회를 열고 도쿄국립박물관에 소장된 ‘공주 출토 금동반가사유상(오구라 콜렉션)’ 등의 환수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윤용혁 공주향토문화연구회장 등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문화재 반환 문제는 현재의 소유권자가 전제돼 있어 당사자 상호간 합의 혹은 공감이 필요하다. 관련 자료에 대한 치밀한 학술적 검토와 객관적 접근이 우선이며 정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뿐 아니라 공적 기관 혹은 민간단체가 함께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서산 보원사지 철불’ 환지본처에는 서산 보원사와 본사인 수덕사가 팔을 걷어 부쳤다. 보원사는 지난 2004년 12월 수덕사의 말사로 등록했고, 개원 이래 꾸준히 환수운동을 추진해왔다. 지역민을 대상으로 고려철불 환수 캠페인을 펼쳤으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격월로 고려철불 친견법회를 신도 대상으로 봉행했다. 2020년 6월에는 수덕사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를 증명으로 한 환수위원회를 구성해 환수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정의 성과도 있었다. 보원사는 2020년 4월 광화문1번가에 ‘보원사지 고려철불의 환지본처’를 정책 제안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철조여래좌상이 출토된 보원사 현지에 보존 및 관리 시설을 갖춘 박물관 등이 건립되면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및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에 따라 요청 시 실사와 협의를 통해 대여 검토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보원사지 철불의 환수에는 충남도, 서산시가 적극 동참하고 있다. 충남도와 서산시는 현재 3단계에 걸친 보원사지 종합정비계획을 추진 중이다. 1단계 사업인 진입로 포장과 주차장 조성은 완료됐으며, 현재는 2단계 사업인 잔디와 산책로 조성, 편의시설 설치 등이 마무리 단계다. 3단계 사업에는 100평 가량의 방문자센터 건립이 이뤄진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천흥사명 동종’은 충남도 · 천안시 · 수덕사 · 천흥사를 중심으로 환지본처가 추진되고 있다. 충남도 도의원과 지역 불교계, 천안시청, 천안시문화원, 천안박물관이 중심이 돼 2020년 ‘천흥사명 동종 환수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현장답사와 관련 모임들을 이어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위원회 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고 ‘잠시 멈춤’ 상태로 있다.

그나마 천안시가 ‘고려시대 문화유산 발굴조사 및 정비사업’을 통해 천흥사지의 사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발굴조사를 이어가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천안시는 2023년까지 천흥사지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2024년까지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수운동 모범, 이천오층석탑

충남도의 사례가 사찰과 지자체 연계의 모범이라면, 이천오층석탑 환수운동은 시민 중심 운동의 모범이다. 이천문화원이 발간하는 지역문화잡지 〈설봉문화〉 제30호(2003)에서 알려지며 시작된 이천오층석탑 환수운동은 두 번의 시민토론회를 통해 2008년 이천오층석탑환수위원회(이하 이천석탑환수위)가 공식 창립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천석탑환수위는 현지 조사를 비롯해 학교 순회 교육, 전시회, 국제심포지엄 등을 진행했으며, 이천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환수 서명 캠페인을 통해 9개월 동안 시민 10만 9000여 명의 서명 동의를 이끌어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환수위는 오쿠라문화재단과 환수를 위한 협의도 30여 차례 이어갔지만, 현재까지는 답보 상태다.

실제적 결실을 아직 맺지 못했지만, 이천오층석탑 환수운동은 시민을 중심으로 한 환수운동의 모범이라고 평가를 받는다.

2009년부터 환수위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 보문 스님(평택 자비사 주지, 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은 “시민의 집념과 열정으로 시작한 환수운동은 10만 명 서명으로 확산됐고, 마침내 지역을 대표하는 사회운동으로 거듭났다”면서 “환수위는 지금도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만큼 모범적인 시민사회단체도 찾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20년 이상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환수위를 운영할 수 있는 재원 마련과 세대 전승은 숙제다. 이상구 환수위 상임위원장은 “이천오층석탑 환지본처는 길게 보고 가야할 운동이다. 세대 전승을 통해서라도 항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구적인 운동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는 실무를 함께해 줄 직원 한 명의 월급도 줄 수 없는 형편”이라며 “정부나 시에서 급여 정도만이라도 보조나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위의 사례를 살펴보면 결국 성보 환지본처운동의 핵심은 ‘지속적 관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자체, 사찰, 시민의 삼박자가 맞을 때 ‘환지본처’의 원동력이 발생함을 인지해야 한다.

성보의 박물관行, 식민정책 때문

연재 과정에서 알 수 있던 것은 ‘왜 수많은 성보들이 자기 자리에서 박물관으로 혹은 타국으로 옮겨졌는가’에 대한 원인이다.

이에 대해 알 수 있는 두 가지 결정적 장면이 있다. 하나는 1915년 당시 경성 경복궁에서 개최된 조선물산공진회(이하 공진회)이다. 공진회는 한일합방 이후 5년 동안 조선의 산업 진흥과 문명 개화를 명분으로 식민 지배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열렸다. 조선총독부는 1913년부터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경복궁 일부 전각들을 전시장으로 개조했다. 중앙홀에는 경주 남산 삼릉곡 약사여래좌상이, 좌우 협시로는 석불입상 2구가 안치됐다.

석조문화재들은 야외 전시물로 전락했다. 당시 석조문화재는 광화문에서 미술관까지 총 6점이 전시됐다. 순서는 △원주 영전사지 보제존자사리탑(총 2기 중 1기) △개성 남계원지 칠층석탑 △원주 영전사지 보제존자사리탑(총 2기 중 1기) △이천 안흥사지 오층석탑 △이천오층석탑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현묘탑 등이었다. 미술관 옆에는 충주 정토사지 홍법국사부도와 탑비가 전시됐다.

본래 자리를 떠나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품이 된 석탑과 불상 등 성보문화재의 대부분은 일제의 식민 지배를 홍보하기 위해 열린 ‘공진회’를 위해 이뤄진 무단 반출의 산물이다.

대한제국 황실이 최초로 설립한 박물관인 ‘이왕가박물관’도 일제강점기의 식민문화정책의 일부였다. 수집품이 전무한 상태에서 건립이 추진됐기에 이왕가박물관은 발의 초기부터 유물 구입에 열을 올렸고, 4년 만에 1만 2000여 점의 소장품을 마련됐다. 실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하사창동 철조여래좌상은 타카다 큐고(高田久吾)가 1911년 2월 20일 850엔의 대금을 받고 불상을 이왕가박물관에 팔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실제 전문가들은 “이왕가박물관의 설립은 왕가를 앞세운 일제 통감부 · 총독부 문화정책의 전개였으며 실질적으로도 식민지 박물관의 성격을 고스란히 내보이고 있다(목수현)”고 비판하고 있다.

공진회, 이왕가박물관과 같은 일제의 식민문화정책으로 수많은 성보들은 자리를 옮겨 박물관의 전시물이 되거나 국외로 반출됐다. 해방 이후 이왕가박물관의 소장품들을 인수인계한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그대로 소장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열린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귀환 기념 학술세미나’에서 문화재전문기자 김태식 연합뉴스 K컬처기획단장은 “국가가 약탈하고 불법 점유한 문화재는 당연히 반환해야 한다”면서 “국립박물관은 약탈문화재를 불법 점유하는 곳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전시 · 교육 등에 필요한 문화재들을 ‘대여’해서 전시하는 기관으로 이제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보가 떠날 수 밖에 없던 이유. 이제는 다시 조명하고 고민해야 한다.

‘마음 달이 홀로 밝으니 …’

편찬자 보각, 대중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머리 조아려 삼배 올립니다.

마지막 13판은 돈이 없어 유고로 남기려 했는데 빈도 가면 할 사람 없고, 12번 배포가 선원 중심이라 사부대중에게 전달 못해 아쉬웠는데, 보시로 문제가 해결되나 대중공양에 값을 매김(권당만원, 농협312-0193-6901-41, 계주:정임상)은 정법이 아니니 돈 없어도 신청하세요.

◈ 10월10일까지 신청서가 도착되어야 마무리하고 동지절 경신일에 갈 수 있습니다.

◈ 신청하실 주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137-8번지 501호 위 옥탑법당 보각스님

◈ 사찰명(신행단체명), 주소, 성명, 전화번호(택배에 필요), 신청부수, 입금액 기재해 편지주세요. (전화 010-2458-0379 있으나 이석증으로 통화가 불가능하고 문자마저 서툴러 꺼두고 있음.)

◈ 내용 : 신심명, 법보단경, 증도가, 법성게, 천부경, 비파시불 이래 역대불조 전법게, 정법진언, 실참(수행 요령) 등 805면에 소신공양 자세로 소납 정성 모두 담았습니다.

◈ 12판과 다르나 돈이 없으니 선원, 강원, 율원도 신청하셔야 인쇄, 송부가 가능합니다. 군소종단 종도, 청신사, 청신녀도 신청, 정법으로 수행 금생에 견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로 소납 하직 인사에 가름하오니 부디 열심히 정정진하여 금생에 성불하소서.

釋迦牟尼佛 瑞相受戒親法子 桓國沙門 曉瞰 釋普覺 謹識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